



겨울철! 전열매트로 인한 화상사고 주의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전열매트류에 특정 신체부위를 오랫동안 노출할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특히,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온도에서 입는 저온화상의 경우,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거나 겉보기와 달리 피부 깊숙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전열매트류는 '전기장판(48%)'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매트(34%)', '전기뜸질기(11%)', '전기요(4.2%)' 순이었다.

■ 전열매트류 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 ▶ 제품 보관 후 재사용할 때에는 본체의 훼손이나 전선 및 전원코드의 손상 여부,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화재, 화상, 감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A/S를 받은 후 사용한다.
- ▶ 제품이 접히거나 특정부분만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또는 온도조절기에 이상이 있으면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접어서 사용하거나 특정부분만 압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온도조절기가 이불 등으로 덮히지 않도록 밖으로 노출시키고 강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
- ▶ 전열매트류는 전기를 사용하는 발열제품으로 항상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빼 놓아야 하며, 소비전력이 크므로 전용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전열매트류를 너무 고온으로 설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스스로 자세변화나 온도감지가 어려운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온도 확인과 자세변경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전기뜸질기는 옷이나 타월 등을 대고 사용하되 1회 30분, 하루 3회 정도가 적당하며, 타이머, 자동전원차단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취침시 사용하지 않는다. 